


**KBRI**  
 한국뇌연구원

**보도자료**

  
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

**2019.10.24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  
**(온라인 2018.10.23(수) 오전 9시 이후 보도 가능)**

**한국뇌연구원, 2019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**  
**- 첨단 뇌연구 대중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노력 인정받아**

- 한국뇌연구원(KBRI, 서판길 원장)은 뇌과학 대중화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‘**2019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우수기관**’으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.
-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매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, 기업, 대학 등을 발굴, 심사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.
  - 올해 공공기관 분야는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한 1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, 일산 킨텍스에서 23일부터 열리는 ‘2019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’에서 해당 기관에 교육부장관 지정서와 인증패를 수여한다.
- 한국뇌연구원은 ▲**뇌과학 대중강연 ‘브레인쇼’**를 매년 개최하고 ▲**국내 유일의 뇌과학 체험교실 ‘브레인 나들이’**를 상시 운영함으로써,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첨단 뇌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뇌과학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이번 심

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- 한국뇌연구원은 초·중·고 학생들이 뇌과학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관련 진로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미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
  - 기존의 일방적 강연을 벗어나 체험을 결합한 가족축제 형태로 뇌과학 강연회를 운영하여, 뇌융합 연구시대에 다양한 학문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.
-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은 “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한국뇌연구원이 그동안 국가 뇌연구를 홍보하고 뇌과학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”며,
- “앞으로 뇌과학 강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뇌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사회적 가치확산과 나눔·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